넓혀 주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시4:1

배경 설명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악이 있는가? Universal question
다윗의 경우, 압살롬의 배반(삼하15장), 황급히 일어나 요르단을 건너 도망감
삼하15:30 울고 모리를 덮고 맨발로 감, 삼하16:7-9, 시므이의 저주
고난과 역경은 오게 마련이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믿음에서 장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디딤돌로 삼아야 복이 된다. 시119:71

1. 구원 받은 자의 간구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왔다(갈2:16).
사도 바울의 고백: 빌3:7-9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만 그분께 간구할 수 있다(히4:16).
빌4:6-7

2. 간구의 근거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 나를 넓혀 주셨나이다.
문제가 꼬여서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길이 좁아져서 꼼짝 못하는 경우(오도가도, 빼도 박도, 진퇴양난)
골리앗, 사울, 블레셋 사람들, 자기 백성들, 밧세바 사건 등
주님이 넓혀 주신 것을 기억하는가? 재정, 학업, 결혼, 직장, 자녀 등
주님께 이것을 보여 드리며 다시 자신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고난과 고통의 효과

1. 고난은 바른 성품을 키운다: 사람은 무엇인가? 용기, 인내, 소망 롬5:1-4 설명
식물학자, 정원에서 식물을 받았다. 열대 식물, 극지방의 식물, 사람이 한대 식물 같다.
사람의 위험은 고통이 아니라 평안함이다. 부귀와 사치와 평안함은 사람을 망친다.
2. 고난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
3.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위대한 사람치고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세계적인 문호 발자크는 자신의 작품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굴이 무너져 갱 속에 갇혀 버린 광부가 목숨을 걸고 곡괭이를 휘두르듯 글을 썼다."
프랑스 소설의 거장인 플로베르 또한 자신의 작품을 쓰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몸이 아파서 하루에 몇 백 번이나 심한 고통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진짜 노동자처럼 이와 같이 괴로운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그렇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비 오는 날이거나 바람 부는 날이거나, 눈이 내리거나 번개가 치는 속에서도
망치를 내리치는 대장장이처럼 글을 썼다."
한 열성 팬이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크라이슬러 씨, 당신처럼 연주할 수만 있다면 목숨이라도 내놓겠어요."
그러나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전 이미 제 목숨을 내 놓았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요셉,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모세, 여호수아
뉴턴, 파스칼, 켈빈, 헨리 모리스, 급류를 만난 아프리카 사람들
4.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넓혀 준다: 죄는 사람을 줄어들게 만든다. 짐승처럼 만든다.
고후1:8-10, 고후8:1-3
초대 교회 성도들, 딤후3:12